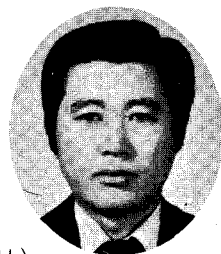


송아지의 제1위 개복수술



崔 瓚 泳

최가축병원 院長
(연세우유 축탁수이사)

I. 患牛의 狀態

往診요청이 있어 牧場에 가보니 患畜은 Holstein(♂), 年齡 約 3~4 個月로 他地에서 구입 후 1 個月이 되었는데 問診結果 芻料도 먹고 飼料도 먹는데 양쪽 아랫배가 사올때부터 유달리 배가 불렀었는데 구입후 自由給食한 탓인지 양쪽 배가 점점 더 불려진것 같다고 한다.

게다가 오늘은 가스까지 차서 고창증(Bloat)까지 왔으니 맹꽂이 배는 유도 아니다. 청진 異狀없고, 体温도 정상이다. 診斷은 Hypoproteinemia (저단백혈증)로 내리고 手術하는 方法外에는 없다고 畜主를 설득했다.

II. 手術준비

牧場에서 다시 病院으로 돌아와 手術기재를 쟁겼다. 송아지를 보정할 芻料과 간단한 手術기구 및 소독약 마취제등을 준비했으나 제 1위 절개수술時 꼭 필요한 Shraud가 없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임기응변으로 폭 30cm, 길이 約 40cm되게 원통형비닐을 2 개 준비해 갔다.

III. 手術過程

患牛保定: 約 35 個月된 송아지라 牛舎의 칸막이 하나에다 前肢의 바로 뒤와 後肢의 앞을 밧줄로 떠서 保定을 시키고 입도 매어서 소가 움직이지 않게 保定을 하고 움직일 경우를 대비하여 두사람을 좌우에 세워 놓았다.

마취: 어리고 쇠약한 송아지인지라 마취없이 Standing position으로 手術을 하기로 했다.

手術前처지: 5%포도당에 강심제(Annaka) 5ml, Amino산제제(Bal-Amino) 60ml를 혼합하여 IV하고 동시에 Fortecillin(Bayer 제품) 400萬단위와 SM 2.5gm을 IM하였다.

術式: 면도기로 左側Frank부위를 제모한 후 術野를 強옥도로 消毒한후 피부절개를 하였다. 그뒤 계속하여 피하직(외복사근, 내복사근) 및 복막을 절개하니 가스와 胃내용물로 充滿된 제 1위가 나타났다.

우선 1위 내용물이 腹腔으로 流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 1위벽과 皮膚를 몇군데 結찰봉합 하였다. 그런뒤 제 1위를 메스로 약간 절개하니 가스와 함께 1위내용물이 꾸역꾸역 밀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뵘싸! 원칙적으로 1 위개복수술時에는 2~3일간 절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Case는 상황이 위급한지라 절식을 시킬 시간이 없었다.

Shraud대신 소독수에 담가두었던 비닐주머니는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고 創面은 이미 1 위 내용물로 오염이 될대로 된 상태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盡人事 在天命이라 했으니 수의사로서 最善을 다하는 수 밖에. 畜主를 불러 現在까지의 狀況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켰다. 切開創이 오염이 다 되었으니 나중에 腹腔을 Saline 溶液으로 깨끗이 세척해낼 각오를 하고 손으로 1위내용물을 모두 제거해 냈다. 그 조그만 송아지 胃에서 위내용물이 3물동이는 족히 나왔다. 소독수로 절개창 주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텅빈 1胃에는 하이라제 (Bayer 제품) 5.0gm을 집어 넣었다.

그뒤 다시 한번 절개창 주위를 消毒水 (溫水에 저멕스탄것)로 가능한한 깨끗이 씻어내고 腸絲로 1위를 봉합하였다. 1 위 봉합후 Saline 溶液 (생리식염수 1.000ml+Fortecillin 800萬단위+SM 5gm혼합한것)으로 腹腔을 灌注하여 복강세척을 2回 실시하였다. 腹腔이 어느정도 깨끗이 세척된것을 확인한후 역시 腸系로 腹膜과 皮하직을 2重연속봉합한후 胃系로 피부봉합을

하였다.

수술도중 1 위내용물을 제거할때 고창증과 양쪽배가 멍뭍이 배처럼 불리지는 原因物質 (ex : 소화안된 볏짚 뭉치, 뭉쳐진 송아지 털, 또는 비닐조각이나 밧줄오라기 等等)이 發見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런것은 發見하지 못했다. 피부봉합후 봉합부위를 다시 강옥도로 소독하고 오염이 많이 되었던 봉합부위에 Fortecillin 800萬단위를 注入하였다. 수술이 성공리에 끝난후 담배한대 피우고 체온을 재보니 36.5℃였다. 그래도 송아지는 눈동자가 말뚱말뚱하여 畜主에게 予後 및 經過를 설명해 주고 3일간 음수와 사료를 완전 절식시킬것을 지시하였다. 수술이 끝난후 송아지는 양쪽의 처지고 늘어졌던 배가 움푹 들어갔다. 걱정은 수술후 체온이 36.5℃로 떨어진데 있는데 수술전에 "Hypovolumic Shock" 를 아트로핀과 푸레드니소론제제로 예방해 주지 못하는데 그 原因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소수술을 처음 보는 축주가 죽은 소를 살려낸것처럼 기뻐하는것을 보고 오랫동안 수의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맛 보았다. 아무쪼록 선후배 동료 개업수의사 여러분들도, 더욱 精進 하셔서 진실로 보람된 수의사 生活을 영위하시길 기원한다.